

사·부·대·중

불교시민운동 10년

1991년 경부선이
기수가 되어 대사회
참여를 호소하고, 기
금마련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애썼다. 그
런 성과들이 노인무
료급식, 실직노숙자
자활 대책, 외국인노
동자 인권문제, 국제
구호사업에까지 이어
졌다. 10년동안 불교



노귀남
경희대 겸임교수

고, 아끼지 않았고 재
목을 몰라보는 경우
도 많아 함께 해도 억
지가 많았다. 하는 일
만 옳다고 생각했지
사람은 소중하게 생
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고 진두
는 '하늘'을 못 보았

계 시민운동의 영역은 다양화 전문
화 되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소속으로 50여개의 사회 시민단체
가 있다. 지방의 군소 조직까지 셀
하면 수백에 이를 것이다. 성장과
발전은 이렇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어떤 비전에서 오늘의 불
교시민운동을 평가할 것이며, 앞으
로의 방향은 어떨지, 거기에 결합
한 인적자원의 질과 미래는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해 생각하면 김칫해
진다. 이 질문은 내 모습이기도 하
다. 10년의 발전이 무엇이고, 후대
에 어떤 모범이 될지, 그동안의 인
재활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뒤늦게
반성이 된다. 나는 후생에 떠밀리
겨져 선생이 되었으니 배움이 없었
고 가르칠 수 없다. 후생은 물어오
지 않는다. 사람을 기르고, 편리하

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내
리보기만 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
만이였다. 배운다고 했지만 배운
것이 없었다.

문득 하늘을 우러러 보며, 낮은
곳에서의 진리를 공부하지 못했음
을 비로소 절감한다. 가난한 이웃
에게 밥을 주고 복념으로 쌀을 보
내는 등 십시일반 거든 바는 있지
만, 낮은 곳에서 우러러 본 적이 없
었다. 이 문제를 철학으로, 교육정
신으로 승화시켜 불교시민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선
진 문명에 뒤지고 돈이 없어 고난
이 되는 시대, 지식과 돈이 계층의
차별을 낳는 모순을 어떻게 벗어야
할까. 낮은 곳에서 일구는 인적 물
적 자원이 진짜를 알는다. 다시 한
번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슬람 기독교 불교인 모두가 길벗”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현각 스님 VS 오강남 교수

영주 현정사 주지 加 리자이나대 종교학과

미국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된 현각 스님과, 한
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비교종교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오강남 교수
가 만났다. 지난 15일, 현각 스님이 바람소리를 벗삼고 있는 경북 영주 현정사에서.
30대 중반의 눈썹은 서양 남자와 25년간 종교를 연구해 온 60대 초반의 학자는, 첫
만남이었음에도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는 없다'고 말하는 오 교수와 '부처는 없다'는 현각 스님의 현실적인 입지
는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가르침처럼 두
사람은 진정한 '도반'이었고, 진리를 향한 '길벗'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현각스님과 오강남교수를 승려와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15일 현정사
에서 다담(茶談)을 나누는 두사람은 그러한 분별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오강남: 스님의 책 <만행>을 읽으면서 스
님의 이야기야말로 기독교와 불교가 한
개 속에서 조화롭게 녹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각: 좋은 사람으로 잘 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
은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구
분하고,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불교인든
기독교인든 모두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는 '현각'입니다. 지금 차 마시고 있는 생명
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강남: 저는 한국어로 예수님을 '올타리
를 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나 넘
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많은 사
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올타리
를 만들곤 합니다. 서로를 분별하고, 나누고
하는 의식들이 문제인데 스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군요.

현각: 그 책은 한국 사람을 위해 쓴 겁니다.
한국말 배워서 읽으면 더 좋겠지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친구 다하듯 편한 마음
으로 <만행>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강남: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는 없다>
를 보고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누님들조차 길 잃은 막내 동생의 영혼이 어
디로 갈 지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또 한편에
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한국 기독교의 현
실을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놓았다는



현각 스님

· 미국 예일대에서
서양철학과 문학
전공.
· 독일 프라이부르
크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 공부.
· 1990년 하버드대
학원 종교학과
재학중 송신스님
의 강연 듣고 91
년 출가.
· 98년 자신의 이
야기를 담은 책
<만행> 출간.
· 현재 경북 영주
현정사 주지.

언어 감옥에 갇히면
부처님의 마음
제대로 못 봐요

점에서 환영하는 분도 많아요.
현각: 한 8년 전에 해인사에서 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
다. 그때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한문
을 모르고,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스님들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스님, 부처님은 한
자 몇 개 알았습니까?" 하고요. 그 스님, 얼굴
이 빨개지면서 부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서 나오신 생명이라고 말씀하
더군요. 절집에서조차도 아직 이렇게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래서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
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만약에 책을 더 내면
'부처는 없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오교수님이 <예수는 없다>를 먼저
내셔서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
다.(웃음)

오강남: 선반 위에 진리가 놓여 있더라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
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있지
만, 대중들이 제 것으로 삼을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각: 만약에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다면, 모든 강원에서 <성경>을 기초교육서
로 읽도록 할 겁니다. 한국 스님들은 예수님
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서
로를 폭넓게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과 같
은 갈등은 없겠지요.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화 불가능해요.

오강남: 탁날한 스님은 부처님 모시듯이
예수님도 모신다고 하더군요. 유대인을 만나
면 유대 전통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을 만나
면 기독교 전통으로, 불교인을 만나면 불교
전통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들이 진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각: 미국에서 폭발 테러사건이 일어나면
날 나는, 뉴욕 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타고 있
었습니다. 그날 너무 놀랐고, 그저 꿈만 같았
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
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라고 이야
기 하는데, 이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서 기인한 참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기독교
인도, 이슬람인도, 불교인도 모두 다 한 생명
입니다.

오강남: 지금의 미국 테러 사건처럼 서로
싸우는 이런 상황들이 종교적인 문제라고만
보는 힘들지만, 종교가 제 목을 다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 목을 다한다는 것은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
고 이해하고, 인류의 안부를 위해서 노력하
는 일입니다. 저는 진리를 찾아 함께 가는
'길벗'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길벗은 어디
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오강남 교수

'나만 옳다' 주장 말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다툼없는 세상 열려

속에서도 있고, 종교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고요. 무언가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
미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는 다 길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각
스님도 길벗으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현각: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과 불교인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을 떠난, 생명
그 자체, 자연인 오강남과 현각으로 만난 겁
니다. 생명 그 자체로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 지
겠지요. 훌륭한 도반을 만나게 되어 저 또한
너무나 기쁩니다. 게다가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찾아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주=이은자 기자 eeje@buddhapia.com

목탁소리

큰 스님들의 '침묵'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공습, 탄
저균 공포 등 피의 악순환을 진정시
킬 해안을 구해보기 위해서 큰 스님
들에게 전화질문을 드렸다. 질문 내
용은, 해결 가능성은 바늘구멍만 해
지고, 전쟁은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
에서,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
원이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 4명이 동원돼 하루
종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일부 스님들 제외하
고는 대부분 스님들이 질문과는 동
떨어진 답변을 하거나 원론적인 수
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답변을 일부 소개하면 이렇다.
'업이야. 스스로를 지은 업인데
내가 뭐 얘기해.' '화합하라고 해
서 되겠다. 대자연에 놔두고 보는
거지.' '중생세계는 싸우는 세계야.
자기종교가 옳다고 고집하니까 싸
우게 되지.'

시자 스님으로부터 큰 스님과 통
화 자체를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왜 묻느냐"는
항의 아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불가에 '양구(久)'라는 말이 있
다. 잠시 아무말 없이 침묵한다'는
뜻으로, 보통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
을 때 스승이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 스님들은 질문의
절반도 하기 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생
각해도 스님들의 '침묵'을 '양구'
라고 여기기에는 무리였다. 백번 양
보해 '양구일설(良口一舌: 말은 다
르나 의미는 같음)'이라고 여기고
싶어도 개운치 않았다.

중생이 불타는 집에 갇혀 있는데,
같은 방편을 써서라도 구하지 않으
면 안 될 상황인데 침묵으로 일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불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큰 스님들을 사표(師表)로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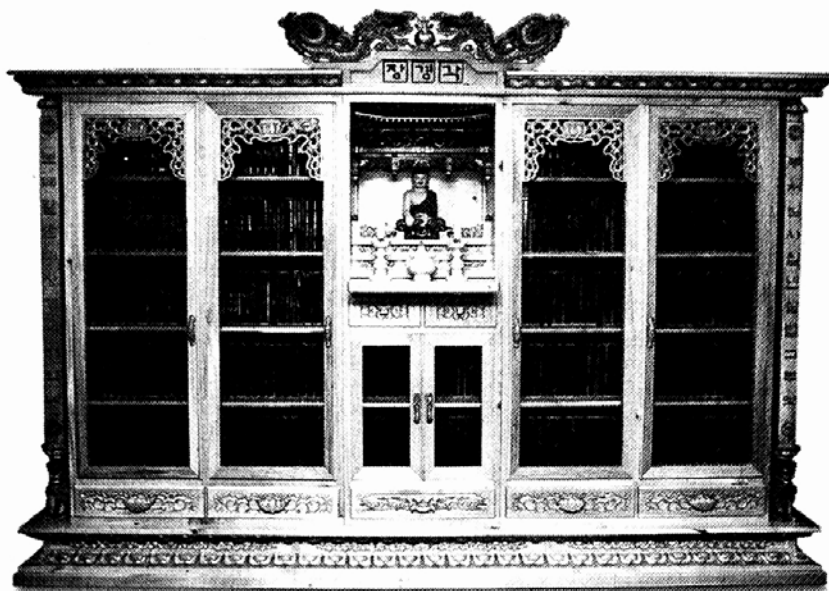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전본모델 가로 340cm x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석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범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단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
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
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뎀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